

##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 2. 아침묵상

이번 주 아침묵상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유튜브를 통해 공개  
됩니다.

## 3. 대강절(Advent) 첫째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하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 기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 하루가 되시기  
를 바랍니다.

## 4. 성탄감사주일&송년주일

12월 24일(주일) 성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2월 31일(주일) 송년주일로 지킵니다.  
송구영신예배는 따로 갖지 않으며 1월 첫째주 신년감사주일로 지킵니다.

## 5. 어머니학교 감사모임

어제 저녁 저희 교회에서 어머니학교 감사모임이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 지난 주 (11/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613.93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김주연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57-66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주일대표기도

12월 10일(대강절둘째)      12월 17일(대강절셋째)  
전주은                                  이우선

###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화-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 누가복음강해 (4) 복을 받은 자의 노래

본문 : 눅1:39-58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얻게 된 자들은 더이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에 연연하지 않으며 그것의 있고 없음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언제나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며 간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 장관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자로 등장합니다. 남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던 한 인생이 나병에 걸리게 됨으로 어떻게 한 순간에 추락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적 시선으로 보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이고, 복을 잃어 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복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비우라고 명령합니다. 잃어 버리고 비우고 떠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복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이나 처지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천사의 말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즉시로 엘리사벳에게로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과 엘리사벳이 살던 동네 엔케렘은 약 1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여성이 몇일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장거리 여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진리를 알고자하는 이 열심이 있습니까?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는 엘리사벳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모두 사실이며 마리아에게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없었지만 6개월전에 미리 그 기적을 경험한 엘리사벳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주변에 오늘도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자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엔케렘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기념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우상화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의미적으로 예수와 세례요한의 첫만남이면서 동시에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찬양합니다. 첫째는 비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는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셋째는 나에게 역설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 누가는 이 복음서를 불신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에게 이 찬양의 고백은 언제가 당신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된다면 당신들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적인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